

## 류린석의 시작품들의 사상주제적내용

리 동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19세기에 창작되었으나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고있는 많은 작품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 이름있는 작가나 작곡가, 화가도 있고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명작도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고 민족문화유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발전시킬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3페이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적극 찾아내어 널리 전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까지 활동한 류린석(1842—1915)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한생을 바친 의병장의 한사람이며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한 문인이였다.

그가 쓴 글들은 《의암집》(54권 29책)에 실려있다. 여기에는 수백여편의 한자서정시들과 격문, 기타 산문들이 수록되어있다.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대표적인 시작품들로는 《구월산으로 들어가면서》, 《통천으로 가던 길에》, 《묘향산에 대한 회포》, 《석계구곡가》, 《고성으로 가는 길에》, 《설악산》, 《바다를 거닐며》, 《청간정》, 《사계절을 노래하노라》, 《강변의 밤경치》, 《산천을 읊노라》 등 여러 작품들을 들수 있다.

시 《묘향산에 대한 회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4대명산가운데서  
묘향산은 장쾌하고 수려하여 이름났네  
이 몸도 장쾌하고 수려한것 좋아하지만  
장쾌하고 수려한 형태만 보지 않노라  
다듬어서 깎아지른 못봉우리 눈길끌고  
일만 골짜기 감도는 흰 구름 가슴 열리네  
언뜰먼뜰 솟구친건 신선이 서있는듯  
기이하게 채운것은 조물주의 숨씨인듯  
먼 옛날 하늘에서 성인이 내려와  
천하의 동쪽에 조선을 세워주었네

시에서는 묘향산은 예로부터 장쾌하고 수려한 명산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묘향산

의 기묘한 모습에 대하여 언뜰뜰 솟구친것은 마치도 《신선》이 서있는듯 하고 조물주가 만 들어세운것같이 신통하고 기이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면서 묘향산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 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나라를 세운 유서깊은 곳이라고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모든 산에 눈 내리면 설악으로 되지만  
설악산엔 눈 내려도 류다른 풍경있네  
설악산에 내린 눈이 다 녹아 없어져도  
흰 눈 내린 모양으로 언제나 솟아있네  
(《설악산》)

왼쪽은 금강산꿀짜기이고  
오른쪽은 푸르른 바다이며라  
청춘의 혈기안고 내 홀로 서니  
이 마음 푸르른 바다로 달려가네  
끝없이 넓고넓은 하늘땅에는  
맑은 정기 한가득 차고넘치고  
하늘가에 높이 솟은 해와 달은  
청신한 빛발을 뿌려주누나  
  
룡이 꿈틀거리는듯 번개치고 우뢰울며  
비내리던 못가는 어느새 고요한데  
봉새가 날아예듯 높이 뜬 흰 구름  
바다가 하늘우에 질게 비졌네  
머리 돌려 제아무리 둘러보아야  
전설속의 신선들을 찾을수 없건만  
곳곳에서 부르는 어부들의 타령소리  
푸르른 파도 타고 들려오누나  
(《고성으로 가는 길에》)

이 시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명산들인 금강산과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푸르른 파도가 설레이는 동해의 경치를 한쪽의 그림과도 같이 한눈에 안겨오게 펼쳐보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산천을 가지고있는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격동된 심정으로 토로하였다.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에서는 다음으로 예로부터 애국심이 강하고 부정의와 타협을 모르며 부모형제간에 친절하고 화목하게 사는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량속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이러한 작품들로서는 《안주 백상루에 올라》, 《개성을 지나면서》, 《선죽교》, 《조정암을 추모하여》, 《나라 위해 죽은 의로운 렬사들을 추모하여》, 《왜놈들이 함방했을 때 절개를 지켜 죽은 여러 사람들을 추모하여》, 《의병총무였던 박참봉을 추억하여》, 《어머니와 딸의 상봉》, 《함께 공부하는 소년에게》, 《김렬수에게 주노라》 등 여러 작품들을 들수 있다.

인륜도덕 말한것이 몇천년이런가  
오백년세월 그 은혜를 깊이 입었네

하늘땅 바뀌어도 나라 명맥 유지하더니  
 원통하구나 몸은 죽고 나라가 무너졌으니  
 푸른 산은 통곡하며 렬사들의 뼈를 묻고  
 솟는 해도 충신들의 그 넋을 빛내주네  
 ...

이것은 시 《나라 위해 죽은 의로운 렬사들을 추모하여》의 한 부분이다. 시에서는 수천 년동안 인륜도덕을 지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원쑤 왜적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되자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나라를 지켜 싸운 의로운 렬사들을 조국의 산과 들, 솟는 해도 잊지 못해 그 넋을 빛내주고있다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 《어머니와 딸의 상봉》에서는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인정세계에 대하여 생활적으로 펼쳐보였다.

멀리 시집간 내 딸이  
 삼년만에 불쑥 문앞에 나타나니  
 만나니 반갑지만 걱정되누나  
 시부모님이 다른 말 하지 않더냐  
 (어머니의 말)

시부모님 웃으며 허락했어요  
 어서 가서 부모님을 만나보라고  
 내가 올 때 시부모님 말씀했어요  
 겨울 내고 새봄에 돌아오라고

시부모님 내 마음 헤아리시여  
 집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만나겠는가  
 떡과 엿을 가져다드리라 했어요  
 (딸의 말)

시에서는 멀리 시집보낸 딸을 3년만에 만난 어머니의 반가움과 오래간만에 친정집으로 나들이를 가는 며느리에게 떡과 엿을 비롯하여 성의있는 음식 등을 들려주는 시부모들의 인정세계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우리 인민은 이웃간에도 화목하고 인정미가 차고넘치는 선량한 인민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펼쳐보이였다.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에서는 다음으로 당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깊은 동정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앞마을의 가난한 집》, 《고사리 꺾는 처녀》, 《김로파를 추모하여》, 《절량》 등 여러 작품들을 들수 있다.

당대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에 깊은 관심을 돌린 류린석은 시 《앞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앞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아침밥을 먹지도 못했는데  
저녁에도 먹을것이 없으니  
아이들은 밥달라고 보채는것을  
안타까와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니  
발버둥질하면서 울어대는데  
아버지는 말도 없이 속만 태우고  
어머니는 큰소리로 꾸짖기만 하누나

고시형식으로 된 시의 앞부분에서는 하루세끼 먹을것이 없어 고통을 겪고있는 가난한 집안의 형편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시의 다음부분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각종 명목으로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관리놈들의 행동을 규탄하였다.

가마라도 팔아서 돈을 구할가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고있는데  
아전놈이 들이닥쳐 군포를 내라니  
불같은 호령을 거절할수 없구나  
품팔이로 방아찢어 얻은 쌀 한홉으로  
한끼라도 굶뎌려고 밥짓자 하는데  
이웃마을 부자놈 달려들어서  
빛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누나  
방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쥐고  
한숨만 뉘저퍼 쉬고있는데  
끊임없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저 하늘을 한가득 채워놓누나

시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저들의 리속만을 채우려고 달려드는 관리놈들의 악착한 수탈행위에 대하여 증오의 감정을 담아 규탄하면서 그놈들의 등쌀에 못 견디여 머리를 싸쥐고 허우적거리는 집주인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가궁한 모습을 눈물겹게 펼쳐보이었다.

시에서는 날이 갈수록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지만 하고 부자놈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모순에 찬 당대 사회를 저주하는 백성들의 울분에 찬 모습과 그들에게 밥한술도 보태주지 못하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었다.

기나긴 세월이 이렇게 흘렀으니  
무정한 이 세월 어떻게 흘러보내랴  
백가지로 궁리하고 천가지로 생각해도  
살아갈 좋은 계책 한가지도 없구나  
어이하여 이 세상 부자놈들은  
저렇듯 복락만을 누려가는가  
제맘대로 입고서 배부르게 먹으며

수많은 재부를 쌓아두고 사누나  
 앞마을의 가난한 집들에서는  
 갈수록 슬픔만이 쌓이고 쌓이는데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으니  
 어이타 그 위기를 이겨낼수 있으리오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하니  
 이 세상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저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하누나  
 그 정상 보느라니 가슴이 아파  
 이 내 얼굴 저절로 이지러지는데  
 내 밥그릇 덜어서 준다 하여도  
 어이타 주린 배를 채워줄수 있으랴

시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하늘땅같이 되고있는 당대의 사회현실을 두고 개탄하면서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그 어디에도 하소할 곳 없어 몸부림치는 서정적주인공의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보이었다.

시의 마감부분에서는 나라에서 백성들을 구제한다고 떠들어대는것은 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한 한갓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구제한다는건  
 책속에만 써여있는 거짓말로구나  
 생각에 잠겨서 문밖을 내다보는데  
 봄물오른 벼들만 흐느적거리누나

류린석의 시작품들은 당대 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였지만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미풍량속을 순수 찬미하는데만 그치고 이처럼 아름다운 산천과 미풍량속을 지키고 빛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히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당대 인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해서도 한갓 동정이나 하는데 그치고 빈부의 차이를 낳게 하는 근본원인에 대하여 옳바로 지적하지 못하였으며 불합리한 사회악을 바로잡을 근본방도도 내놓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류린석의 시작품들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의 문학발전과 주체명역을 풍부히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19세기에 창작된 문학작품들을 적극 찾아내어 널리 소개함으로써 민족문학예술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